

친일·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않고 오류만 수정하겠다는 교육부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편향 논란 확산

서남수 장관 “교과서 8종 모두 재검토하겠다”
與 “다양한 목소리 환영” ... 野 “본말전도 궤변”

교과서의 한국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1일 검정용 합격한 교과서 등 교과서 8종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수정·보완 등 재검토 작업을 통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를 봤을 때 ‘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검정 취소할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재검토 대상도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오류 확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교과서는 크게 친일과 5·16 미화 같은 우편향적인 서술태도, 연도 등 역사적 사실 오류, 인터넷 자료 인용을 비롯한 표집 시비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부실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 부분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검정 교과서로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역사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정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려를 표명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충분히 이해시킬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8종 교과서를 재검토하기 위해 부내 한국사 전공 또는 교과서 관련 전문가와 전문

직 인력을 활용하고 국사편찬위의 전문가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에서 인원을 지원받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교육부의 발표 후 구두논평을 통해 “서 장관이 수정·보완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잘한 일’이라면서 “재검토시 보수·진보를 떠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역사 교과서 친일독재·미화왜곡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구두 논평에서 “교과서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해 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교육부가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며 “교과서 교과서 검정 취소 문제를 단순한 수정 문제로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도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의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종 교과서를 수정·보완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라며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수



국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교과서 역사교과서 검정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위) 아래는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 보완이 아니라 폐기만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역사·사회분야 465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퇴출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교과서, 발행 포기 검토

“불매운동 협박 받아” ... 다음주 중 입장 정리

‘우편향’과 사실오류 논란을 빚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인 교학사가 발행을 포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학사 관계자는 12일 “발행 포기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교과서 대표가 살해 위협을 받았고 직원들에게도 테러 수준의 협박 전화가 온다”며 “교학사는 일개 출판사일 뿐 사상 논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논란이 되는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46종이 이번에 검·인정을 통과했다.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 정권을 미화했다는 비판 등을 받아 다른 교과서에 대한 불매운동

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는 이번에 검·인정을 통과한 우리 출판사의 많은 책 중 하나”라며 “다른 교과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조짐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필진은 발행이 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인 이명희(공주대) 교수는 “교학사 대표로부터 압력이 너무 심하다는 하소연을 전해들었다”며 “하지만 저자들은 발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은 전례가 없어 교학사가 발행을 포기할 경우 법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정 말고 퇴출시켜야”

광주교육청·광주시의회·5·18 단체 등 “엉터리 교과서 검정 취소”

광주지역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편향한 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도 교육부가 수정·보완 방침을 발표한 교과서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단순히 오류만 수정해서는 안되고 검정 취소를 통해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방침에 대한 입장’에서 “교과서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왜곡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교과서 교과서는 정부에서 금지하는 중공·민비 등의 용어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에게 사용할 교과서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수능에서 한국사 필수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이런 교과서는 추후 수능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에서도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부는 수정·보완이 아닌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과서 논란을 계기로 역사 교사들을 상대로 한 연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역사 왜곡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채택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과서의 고교 역사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등 왜곡과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의도적 축소와 누락,

미화, 폄하로 일관한 이 책은 역사 교과서로서 부적합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 설립 추진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검정을 사과하고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무시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라”며 교육부 역사 뉴라이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 미화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교과서는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한 엉터리”라며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과서를 준다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대안으로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각각 검정합격을 취소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전남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에서 교과서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 강연한 일을 언급하며 공세를 나섰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학문·교육, 언론, 문화 등 이념 관련 분야에서는 좌파가 이미 절대적 다수를 형성했다”며 “현 국면이 유지되면 10년 내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전복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모임을 결성하며 좌파와의 전횡을 운운하더니 결국 이것이었는지 개탄스럽다”며 “교과서 교과서가 왜 유해 서적으로 둔감했는지 알만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비타민하우스 건강기능식품 특별 할인전

※비타민하우스 가맹 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멀티비타민 웰 플러스	한정판 67%	70,000원	20,000원
전립선 건강 복합쏘팔메토	한정판 43%	70,000원	40,000원
관절 건강 MSM 2000	한정판 35%	70,000원	45,000원
뼈 건강 프리미엄 비타민D	한정판 25%	40,000원	30,000원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C 1000	한정판 46%	56,000원	30,000원

Vitamin House 구입문의 : 02-570-6075

빛이만평 - 김종두

달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